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는 가까운 위치에 버스 정류장과 캐나다라인이 있어서 방과 후에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기에도 접근성이 좋았고, 등교할 때도 편리했다. 사실상 랑가라에서는 수업과 프리젠테이션 활동 그리고 식사밖에는 활동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학교 내에 팀홀튼, 서브웨이, (공사 중이었지만)스타벅스, 카페 등이 있어서 편리했다. 가끔 아침마다 거위들이 학교 잔디밭으로 날아와 거위들을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수업	수업은 반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제일 높은 반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내용이 그룹 활동, 발표 활동들이 많았고 다소 어려운 주제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반에 비해서 숙제는 거의 없었던 편이었다. 한국인들끼리만 수업을 했던 지난 겨울 프로그램과 다르게 이번에는 일본인 친구들과 합반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룹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친구들과 많이 친해져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Discovery vancouver, kayaking, Aquarium of vancouver, museum of vancouver, whistler trip. 이렇게 다섯가지가 필드트립이었는데 그냥 그랬다. 그냥 수업을 안해서 트립이 좋았다. -Discovery vancouver: 다운타운 지역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으로 가이드로부터 맛집, 좋은 펍 등 꿀팁을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걸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kayaking: 카약킹을 엄청 예쁜 곳에서 하기는 하지만 카약킹이 너무 힘들어서 집중하느라 풍경을 잘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Aquarium of vancouver: 야외에 있는 포유류 동물들 보는 것밖에는 볼

	것이 없다. -Museum of vancouver: 박물관 안 좋아하면 별로다. 관람을 하면서 활동지를 채워야 하는데 그 활동지 질문이 너무 어렵다. 하지만 박물관이 키칠라노 비치 옆에 있어서 놀러가기는 좋았다. -whistler trip: 엄청 불편한 스쿨버스를 타고 왕복 5시간 이동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그랬다. 곤돌라 타는 것이 제일 재밌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밴쿠버 첫주는 정말 습하지 않은 한국의 여름날씨 정도로 따썩고 좋은 날씨였는데 둘째주, 셋째주는 가을 날씨 정도로 추웠다. 후드티나 맨투맨을 사서 입고 다녔다. 밴쿠버는 레인쿠버라고 불릴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는데 우리가 있었던 3주 동안 두 번 정도밖에 비가 안 왔던 것 같아 정말 좋았다.
안전	Homeless들이 많은 Hastings street만 가지 않는다면 위험하지 않은 도시인 것 같다. 해외 나가면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하는데 딱히 주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치안이였다. 밤에도 거리에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아서 늦게 다니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다.
숙소	홈스테이는 집마다 매우 다르지만 우리 집은 정말 별로였다. 지켜야 할 사항들이 특이하게 많았고, 고데기나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해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거까지 해줘야 하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이 나빴었다. 그리고 집에 자가용이 없어서 마지막 날 공항에 짐을 들고 갈 때 불편했다. 하지만 집의 위치는 어딜 가나 1시간 안쪽이라서 좋았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o) 기타 (o) 아침은 홈스테이에서 준비해주는 토스트나 계란,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고, 점심은 학교를 갈 때는 항상 홈스테이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줬다. 저녁은 항상 밖에서 밥을 먹었다. 외부 식당은 밴쿠버는 multicultural라서 현지식이랄게 거의 없다. 그래서 그냥 구글링을 통해 동서양 구분하지 않고 맛집을 찾아다녔다.
교통	학교에서 컴패스 카드를 지급해줘서 대중교통을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다. 밤에는 버스가 정말 드문드문 다녀서 집에 늦게 도착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700,000	식사, 디저트...
기념품	300,000	
쇼핑	400,000	
합계	1,4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기후를 좀 더 알아보고 옷을 준비해야 한다. 전부 여름옷만 가져갔다가 너무 추워서 긴 옷을 계속 사 입었다. 생각보다 식비에 돈을 많이 쓰게 된다. 한 끼 먹는데 기본 2만원 정도는 든다고 생각해야 한다. 환전을 70만원 이상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출국 전에 홈스테이 집에 꼭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좋다. 이메일 안하고 그냥 갔더니 첫날부터 수건사고 샴푸사고 돈 지출을 많이 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정말 3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진짜 꿈을 꾸 것만 같다. 한국에 온지 이제 겨우 3 일째인데 밴쿠버가 너무 그립다. 사실 밴쿠버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너무 그립다. 첫 주째에는 액티비티 활동들이 많아서 잘 친해지지 못했고 둘째 주부터 수업량이 많아지면서 반 친구들과의 교류가 많아져서 친해지기 시작했을 때는 벌써 셋째 주여서 밴쿠버를 떠나야 해서 너무 아쉬웠다. 반 친구들 중에 한국인 친구들은 개강을 하고 보면 되지만 일본인 친구들은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

었다.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친구들과 일본인 친구들이 보고 싶다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우리 반 친구들은 거의 남자친구들이었는데 친구들이 정말 착하고 정도 많고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한국어도 잘 할 줄 알고 케이팝을 좋아해서 친해지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밴쿠버 도시 자체의 아름답고 여유로운 분위기도 너무 좋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3주간의 어학연수였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간호 친구들과 함께 랑가라에서
간호후드티 사입고 퀸엘리자베스공원



우리 table manner 프레젠테이션 팀
the best team ever



다같이 playland가서 놀고
steamworks에서 회식



휘슬러 정상 아닌 정상에서 단체사진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우리
크리스티반 단체사진



공항까지 마중 나와준 우리 프레젠테이션
best team